

## ■ ( 언론 동향 ) 2021.6.23. “농민신문” 보도내용

### ○ 일본농협, 계통공급 비료가격 인상

#### - 요소인산일암모늄 등 원자재값 급등 ... 해상운임 상승 탓

일본 전국농협연합회(JA전농)가 계통공급하는 가을비료(추비)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해말 이후 비료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계통공급하는 가을비료 가격을 조정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계통공급 비료 가격을 봄비료(춘비)와 가을비료로 나눠 두번 결정한다.

JA전농은 원자재 가운데 요소와 인산일암모늄(MAP)·인산이암모늄(DAP) 가격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다.

JA전농에 따르면 봄비료 가격 설정 시보다 요소와 DAP의 국제시장 가격이 약 1.5~1.7배 올랐다. 칼륨 역시 수요가 늘어나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해상 운임 상승도 JA전농의 가을비료 가격 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해상 운송 수요가 늘어나고 철광석·곡물 운송량 역시 증가하자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른 것이다.

해상 운임과 비료 가격의 60% 이상 차지하는 원자재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가을비료 가격 역시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게 JA전농의 설명이다.

JA전농은 질소질비료 가운데 수입요소는 24%, 황산암모늄은 10.4% 인상을 각각 결정했다. 또 염화칼륨은 8.4%, 인산질비료는 5.3% 각각 올렸다. 가격이 급등한 DAP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복합비료 등의 품목은 10% 이상 인상된 것으로 알려졌다.

JA전농 측은 “2008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이래 이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적은 없었다”며 “인상한 가격은 6월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역시 일본과 마찬가지로 비료 원자재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국제적인 가격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비료협회 측은 “중국·호주 간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석탄·철강석 물량 확보를 위한 선박 쏠림현상이 발생해 국제 해상 운임이 약 3배 올랐다”며 “원자재 가격 급등세도 꺾이지 않아 무기질비료 생산업체의 영업 타격이 막대하다”고 밝혔다.

<김다정 기자>

회원사 : 남해화학(주) · (주)조비 · (주)카프로 · (주)팜한농 · (주)풍농 · (주)한국협화 · (주)세기

한국비료협회([www.fert-kfia.or.kr](http://www.fert-kfia.or.kr))

☎ 02-552-2811~2 FAX : 02-552-2814